11/15/26

설교 제목: 공로가 아닌 은혜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20 장 1-16 절

포도원의 품꾼들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며 더 나은 보상을 기대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용직 일꾼을 찾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당시 일용직 품꾼들은 아침 일찍부터 길거리나 모퉁이에 나와 서서 자신들에게 하루 일거리를 제공할 고용주를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제 삼시(오전 9 시), 제 육시(정오 12 시), 제 구시(오후 3 시), 제 십일시(오후 5 시)에도 장터에 나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른 아침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복음 초청에 선참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뿐만 아니라 제 삼시(오전 9 시), 제 육시(정오 12 시), 제 구시(오후 3 시), 심지어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 일 할 시간이 겨우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은 제 십일 시(오후 5 시)에도 장터에 나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손이 모자라서요?

3 절과 7 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자식과 연로한 부모가 있어 반드시 일을 하여 품삯을 벌어야 할 형편임에도 일 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하루 종일 놀고 서있어야 했고, 결국 빈 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주인은 그 사실을 안타까이 여기고 일감을 찾지 못해 놀고 서있는 그들에게 일 할 기회를 주어 돈을 벌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주인이 품꾼들의 품삯을 정산합니다.

품삯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순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중 온 사람들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와 일한 사람들이 원망을 터뜨립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 온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정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 일 한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와 일 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내심 자신들은 더 많이 받겠거니 생각하고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 일 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은 약속한대로 품삯을 지불했기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네 것이나 가져가라고 합니다.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당신 뜻이라고 합니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의 수익보다는 품꾼들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먼저 고용됐거나 나중에 고용됐거나 모두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으며,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품삯이 필요했습니다.
주인은 저녁 무렵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그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품꾼들이 일자리를 구하여 품삯을 벌어야 하는데 늦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계속 시장에 나가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품삯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배려하여 하루 품삯을 다 준 주인의 행동은 선합니다.

비유는 불만을 제기한 일꾼들의 대답없이 열린 상태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논평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며 더 나은 보상을 기대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늦게 들어와 가장 적게 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얻어 많은 일을 한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늦게 들어와 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만, 그들 역시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비를 벌지 못한 채 절망하며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일찍 부름받은 자나 늦게 부름받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므로 먼저 부름받아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나중에 부름을 받아 자신들보다 짧은 시간 일한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오랫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 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소외되거나 버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믿었든 나중 믿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랑해서도 안됩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